

몽테뉴의 서재,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위대한 교양인 몽테뉴〉를 읽고

이광주 | 인제대 명예교수 · 서양사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마다 그 자신의 '고전'을 몇 권씩은 갖고 있을 것이다. 내게 몽테뉴의 《에세》(1580~88)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20대부터 지금도 한해에 두세번 한유(閑遊)의 시간을 골라 《에세》를 펼쳐든다. 그럴 때면

몽테뉴는 어김없이 독서의 참맛을, 약간 과장하면 서중선(書中仙)의 세계를 나의 둘레에 펼쳐준다. 서적을 둘러싼 즐거움을 이것저것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쁨으로서의 지성'을 누린 몽테뉴의 실루엣이다. 《에세》의 저자는 내게는 무엇보다 이상적인 독서인이다.

고전의 바다, 서적의 미식가

"나는 어릴 때부터 그들이, 옛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다. 나는 내 가문의 역사를 알기 훨씬 이전에 로마의 역사를 배웠다. 나는 루블을 알기 전에 카피톨과 그 위치를 알았으며 세느강보다 먼저 티베르강을 알고 있었다. ... 이 우정은 아직도 로마 사람들과 나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다."

시민계급 출신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두 살 때까지 라틴어를 배웠다는 몽테뉴, 《에세》는 원래 그가 읽은 고전의 명문선(名文選)이요, 주석서이나 우리들은 그 구구절절에서 옛 작가들과 몽테뉴 사이의 지기(知己)의 교감이 아로새겨져 있음을 감지한다. 몽테뉴의 첫번째 축복은 그가 고전의 세례를 받으며 인생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라.

천년의 믿음이 증오의 이데올로기로 화한, 모든 사람들을 당파싸움에 몰아넣은 난세 속에서, 그 높은 신분과 학덕으로 인해 한때 왕후들의 싸움에 가담하면서도 생애를 통해 인간적인 진실만을 탐색한 몽테뉴. 그 유유자적한 자아의 묘약은 무엇이었을까.

몽테뉴가 독서의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은 법관을 그만두고 귀향하는 1572년 그의 나이 38세 이후다. "집에 있으면 자주 나는 도서실에 들어 박힌다. 거기서 나는 독서하면서 가사를 감독한다", "나는 때로는 이 책을 또 때로는 저 책을, 그럴 듯 이렇다할 순서도, 목적도 없이 이것저것 골라서 읽는다. 때로는 몽상하고 때로는 기웃거리면서 여기(《에세》)에 있는 것과 비슷한 몽상을 기록하거나 구술하기도 한다." 몽테뉴의 독서방법(분명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은 자유자재, 그의 취향, 그의 생활방식 그대로다.

"나는 매일 많은 사람들의 서적을 읽으며 산다. 그런데 그들의 학식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그 사람됨을 알기 위해서다." 몽테뉴는 삶과 유리된 사변이나 학식을 '거짓 학문'으로 비웃었다. "내가 책을 찾는 것은 오직 거기에 진지한 놀이의 방식으로 조그마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연구도 하지만 나는 거기에 오직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하는가 논하는 학문, 훌륭한 죽음과 삶을 가르치는 학문만을 찾고자 한다." '놀이'로서의 독서, 인간과 나 자신의 탐색, 이것이 몽테뉴가 서적에 바란 알파오, 오메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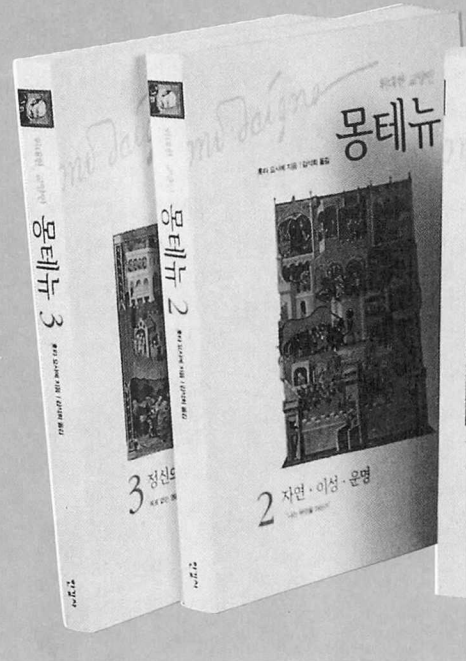
몽테뉴는 한평생 부유한 고전의 풍요한 바다 속에서도 특히 플라투르크와 세네카에 가장 매료됐다. 《에세》에는 성서나 교부들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으며 동시대의 작가로서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보카치오의 《테카메론》과 라블레 정도였다. 플라투르크는 언제나 그의 책상에 놓여 있었다.

"플라투르크는 조용하고 전아한 사회 속에서도 알맞은 플라톤풍의 생각을 지닌다. 한편 세네카는 스토아적이며 에피쿠로스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 ...플라투르크는 한없이 자유로우며 사실에 충만되고, 세네카는 경구와 기지에 가득 차 있다." 우리들은 서적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인생에서 그가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고전작가들로부터 향수한 것을 우리는 바로 《에세》에서 즐기고 있음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크 세즈', 자아의 발견

'문체, 그것은 인간이다.' 이 진실이 《에세》의 저자에 있어서만큼 잘 부각된 문필가도 드물다고 할 것이다. '에세(essai)'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적인 <시도>'를 의미하는 바, 《미메시스》의 저자에 의하면 몽테뉴는 《에세》를 통해 '문인(homme de lettres)'이라는 새로운 사회범주를, 그리고 새 독자층을 창출했다.

지난날 문필가란 시인·소설가·역사가·철학자 등에서 보듯 일정한 주제와 방법, 그리고 특정한 독자를 지닌, 한 장르에 틀어박힌 '전업' 저술가였다. 그러나 몽테뉴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체'에 눈을 돌렸다. 몽



위대한 교양인
몽테뉴

훗타 요시에 지음 | 2011년 1월 10일



의 시대

인물사

훗타 요시에 지음/김석희 옮김
한길사/A5신/각 376면 내외/각 10,000원

테뉴에 비하면 르네상스시대의 휴머니스트들도 '전문가'다. 사실 휴머니스트란 원래 라틴어의 문법 교사를 지칭했다.

몽테뉴는 유별(類別)하고 체계화하는 학문과 더불어 이른바 전문가들을 그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 "모두가 뛰어난 일을 통해서 혹은 무엇인가 특수한 능력에 의해 얻고자 하는 것을 하는 생각과 행동의 질서·조화·온화함에 의해 얻기를 바란다." 몽테뉴 최상의 관심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삶 전체였다. 그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떤 하잘 것 없는 것도, 또 어떤 엄청난 사상도 인간 정신이 낳은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에세》의 다양한 주제, 자유로운 구성과 문체, 그리고 방법론 아닌 방법론은 인간탐색이라는 그의 주제의 필연적인 소산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에세》는 이전에는 없었던 '에스프리'라고 일컬어지는 망탈리테를 창출했다. 몽테뉴는 분명히 프랑스적인 지성의, 근대 프랑스 문학과 사상의 빛나는 정초자(定礎者)다.

'크 세즈', 이 물음에서 출발한 그의 인간 관찰은 자기 신뢰에서 비롯됐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인간을 표현한다고 믿었던 몽테뉴는 시종일관 '나 자신을 그리고자 시도' 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정면을 본다. 나는 눈을 내면에 돌린다. 거기에 자리잡아 눈여겨 본다...오직 나만이 나의 상대다. 나는 끊임없이 나를 고찰하고 나를 검증하고 음미한다." "가능한 한 나는 나를 말하며 나 자신을 위해 쓴다." 《에세》의 유명한 머리말, "독자들에게, 이것은 거짓이 없는 진정 정직한 책입니다...나는 이 책을 쓰는 데 있어 나 자신의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습시다...전적으로 나는 나 자신을 여기에 그렸습니다." 《에세》는 루소의 《고백》에 실로 2백년 앞선 자아와 자아를 통한 인간 관찰의 기록이다.

그런데 몽테뉴의 자아는 그와 동시대의 라블레가 그린 이탈리아 르네상스풍의 '전능의 거인'과 전혀 다른 자신의 삶을 "세상 일반의 질서가 인도하는대로 즐겨 따르는" 파스칼의 이른바 '섬세한 정신'의 생활의의 그것이다. "나는 강력하고 박학한 사상을 감히 갖기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도서실은 탑의 3층에 있다. 5단으로 나란히 꽃힌 장서는 모두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세계의 창으로부터 풍족하고 넓고 넓은 경치가 바라보이며 방 가운데에는 직경 16보 가량의 공간이 있다...나는 여기를 나의 완벽한 지배 아래두고자 노력한다...자기 집에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곳, 오직 자기를 받을 수 있는 곳, 자기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을 지니지 못한 이는 가없어라!" 몽테뉴는 분명 이상적인 서재인이다.

편안한, 생활에 적응한 그것을 갖고자 원한다." "나는 나의 생활이 좋다..." 미셀성의 주인은 스콜라주의적인 서재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상적인 서재인

그의 서재는 산책로에 이어지고 또한 여행길에 통했다. 그가 즐겼던 여행은 일상적인 것과의 단절이거나 해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을 배우는' 또 하나의 즐거운 학교였다. 참된 생활인이라 할경 삶의 에피큐리언에게 마련이다. 독서의 공덕으로서도 '놀이'의 즐거움을 먼저 꼽은 몽테뉴에 있어 삶의 '마지막 목적'은 '쾌락'이었다.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서 관련된 저 현재적 쾌락에 나는 마음 약하게 끌린다." 앙드레 모로아는 프랑스인이 인생을 모든 모습으로 관찰하고 맛보고 있음을 '육감적 쾌락'의 기쁨으로서 표현한 바, 이 점에 있어서도 몽테뉴는 제일 앞선 프랑스인이었다. 이 독서와 삶의 미식가는 잡다한 '사물'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그로부터의 '자유와 무위'를 또한 즐겼다.

자기 자신의 '사교성(sociabilite)'을 강조한 몽테뉴는 글쓰기보다도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고, 연설보다도 화롯가 담론에 무게를 뒀다.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이야기할 뿐이다." 그의 기쁨 중의 기쁨은 인간적 품위와 좋은 학예를 두루 갖춘 오네톱(사교인) 즉 교양인(훗날 이 교양인이야말로 《에세》의 가장 좋은 독자가 된다!)과의 친분이었다. "거기에는 우아함과 절도가 언제나 있으며 모든 것이 원숙되고 한결 같은 양식의 색깔이 진하고 호감과 진솔함, 희열과 우애가 섞여 있다." 오네톱과의 우정에 이은 몽테뉴의 큰 기쁨은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 라 보에시를 평생 잊지 못했으며 '나의 인연의 딸' 마리 드 구르네와의 만남을 찬탄했다. 서적은 몽테뉴의 세번째 기쁨이었다. 그런데 서적이 좋은 것은 앞의 두 만남과는 달리 그것은 "언제나 내가 가는 곳에 따르고 어디에서도 나를 섬기기" 때문이다. 이 말에 공감하면서 이제 몽테뉴의 서재를 들여다 보자. ●